



내일의 희망을 드리는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집**

2013년 기획특집
노숙인쉼터 15주년 회고록



15년 동안 한결같이 함께 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8년, 우리는 IMF라는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였을 때, 온 교회와 온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각 기업들마다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한 집 건너 실직자가 발생할 정도로 전 국민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이나 거리에는 실직자들

이 넘쳐났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역, 종로, 을지로에 실직자와 노숙자들이 뒤엉켜 한 끼의 식사를 위해 100여미터씩 줄을 서는 모습들이 방송에 보도되고, 우리 해인 교회 주변의 약수터나 싸이클 경기장에도 벵타이를 맨 채 출근을 못한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인교회가 실직자를 위한 쉼터요, 자활모임터인 인천내일을여는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내의 실직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했지만, 단기간의 좋은 성과로 교회를 넘어 지역 주민의 실직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 사건도 15년 전의 일입니다만 오늘 우리 해인교회와 내일을여는집은 더 더욱 당시의 상황을 마음에 새기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무료급식이나 푸드뱅크로 지원을 하고, 잠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쉼터와 임시주거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희망고용지원센터나 사회적기업 두 곳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특별히 노인들에게는 시니어클럽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어 현재 1,000여명이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운전면허, 한식, 양식, 바리스타 등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폭력이나 자녀들의 문제로 상담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담과 아울러 피난처 제공, 자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촘촘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민간사회안전망을 그 어느 곳보다 튼튼하게 만들었고, 이곳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내일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여러분의 지지와 성

원이 결국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사장님으로 수고해 오신 박동일 목사님도 교단의 총회장에 피선되어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공동의장으로 수고하시게 되었고, 변호사 시절부터 이사로 참여했던 송영길 이사와 문병호 이사로 인천광역시 시장과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노숙인쉼터 운영위원으로 일하셨던 이한구 위원도 시민후보로 시의원이 되셨고, 시니어클럽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신 최원식 변호사도 국회의원이 되셨고,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위원으로 봉사하셨던 이명숙 위원도 시의원을 걸쳐 인천시 시립박물관 관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무료 급식소로 자원봉사하러 오시는 윤환 계양구 의원님, 푸드뱅크와 마켓의 운영위원으로 변함없이 활동해 주시는 이준홍 전 계양구 구의회 의장님과 광성구 구의원님 등 모두가 우리 내일을여는집을 만들어가는 큰 일꾼들입니다. 역시 우리 회원님들께서 이사님들과 위원님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선한 사역에 참여하신 이분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박동일 목사님의 뒤를 이어 올해부터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해인교회 교우들과 더불어 수고하고 봉사해 왔던 이 사역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처럼 변함없이 우리 후원회원님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내일의 희망을 잃어 오늘을 슬픔과 고통으로 보내는 모든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 주신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표지	내일을여는집 대표이사부부	
여는 글		2
Part 01_ 희망을 열어가는 이야기		
특 집	노숙인쉼터 15주년의 회고	4
특 집	추운 겨울에도 거리에는 노숙인이....	9
특 집	여성노숙인쉼터 연극관람	12
특 집	따뜻한 추석나누기	13
	1박2일 자연을 통한 힐링 여행	14
	쪽방! 희망을 심다	16
	2013년 어르신과 함께 한 일자리 974개	17
	한우리 공동 사업장 이전 새단장	18
	공부방 새단장 새희망을 꿈꾸다	19
	외도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 해결책을 찾아서	21
Part 02_ 희망을 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족상담소가 이전했어요	23
	희망의 꽃씨!	25
	실버들이 운영하는 은빛 미용실 오픈	25
	미술을 통해 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26
	의료봉사를 통해 희망을 심었어요	27
	행복한 화장실, 웃음꽃피는 공간으로	29
Part 03_ 희망을 보도하는 언론		
	언론보도자료	30
Part 04_ 희망을 주는 사람들		
	후원금내역	35
Part 05_ 희망교육원		
	가족상담소 교육	40
후면	해인교회	



노숙인 쉼터 15주년의 회고

○ 쉼터 직원들의 회상에 대한 정리 : 이문재 상담원

1997년의 해인 교회는 젊은 청년 대학생까지 총 30명 정도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였다. 그 해 유난히 교인들은 생활에 버거워 했고, 실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1994년 7월에 재개척을 시작한 이준모 목사에게는 가장 큰 시련으로 교회는 침체의 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그 해 12월은 우리나라는 부도가 나고, 국제 통화 기금(IMF)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게 되었다. 구제금융의 현상은 서울역을 비롯한 을지로 등 일대에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수 많은 노숙자들이 한 끼의 식사를 얻기 위하여 200여 미터씩 줄을 서기도 했다. 당시 해인교회의 담임으로 있던 이준모 목사는 실직한 교인들 위해 고심하다가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재취업을 위한 상담과 교육도 진행하기 시작한다. 이준모 목사와 교인들의 기도와 각고의 노력 끝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취업과 함께 기적적으로 안정을 되찾아 가기 시작하였고, 놀랍게도 IMF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제외한 모든 가정이 모두 재취업에 성공하게 된다.

한편으로 교인들은 이와같은 특별한 경험으로 교회 밖의 실직자들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고, 그 때부터 실직자를 위한 해인교회의 사역이 시작되었다. 평소 해인교회는 민중교회와 민중신학을 바탕으로 한 복음(눅4:18~19 참조)에 대한 남다른 이해를 하고 있었고, ‘인간해방’과 ‘인천해방’이라는 큰 주제를 따서 교회의 이름도 지은 터라 실직자를 위한 사역에 쉽게 공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해인교회는 실직자를 위한 상담을 시작했다. 그런데 곧 이 사역은 하루하루 식사 끼니를 할 수 없었던 이들을 위한 무료급식의 문제가 대두 되었다. 교회가 작아 예산은 바닥나고, 실직자들은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이 모여 들어 100여명이 넘게 방문했다. 밥과 라면, 그리고 김치 하나 놓고 먹는 상황이 연속되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오래 가지 못했다. 끝내 이준모 목사는 그들을 위해 자장면집, 떡집 등 팔다 남은 식품을 얻으려 다녔다. 어느덧 이준모 목사는 ‘넥타이를 맨 거지’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이런 출발이 시기적으로는 매우 힘겹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였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정식으로 무료급식소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푸드뱅크 사업과 푸드마켓 사업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한 고비를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육아의 문제였다. 실직한 노숙인들이 자활하여 재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해야 하고 그래야 자녀도 양육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일하러 나가게 되면 정작 돌보아야 할 자녀들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아이를 돌보고 있으면 도무지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자녀가 있는 노숙인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 이에 해인 교회는 교회 한쪽의 칸을 막아서 아이를 돌보아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것이 공부방이 되었고, 후에는 해인 지역 아동센터가 되었다. 이렇게 노숙인 쉼터에 찾아오는 실직 노숙인들은 결코 한 가지 문제만을 가져오지 않았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를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노숙인쉼터도 그것에 맞게 변화되어야만 했다. 여성노숙인쉼터의 시작도 바로 그런 이유로 시작되었다.

노숙인쉼터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의 일이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실직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찾아와서 자장밥을 나누어 먹고 있었다. 행색을 보니 쉼 곳이 없는 노숙인 같았다. 여성 노숙인이라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엄연한 사실이었다. 당시 당국에서는 인천엔 노숙인이 없을뿐더러 여성 노숙인은 더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여성 노숙인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 이에 이준모 목사는 이러한 사실을 시당국에 알리게 되었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노숙인 쉼터가 남녀 노숙인 쉼터로 분리되어서 운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노숙인들과 동고동락을 하던 중 2001년에 접어들면서 노숙인 쉼터는 또 다른 문제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일자리 문제였다. 취업의 문제는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IMF 당시에 생겨났던 실직 노숙인들보다 노숙이 만성화된 노숙인들은 비교적 취업능력도 떨어지고 의지도 부족해 보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어떤 이들은 개인의 의지문제나 알코올중독 문제 정도로 진단하기도 하였으나 사실 그들의 내면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생에 있어 ‘희망’이 없다는 점이었다. 설령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술과 여자를 사는 것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 ‘희망의 부재’는 매사에 의욕을 잃게 하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잃게 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감마저도 잃어버리게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노숙인들

의 심리적인 상황을 이해한 해인교회는 쉼터 식구들에게 인생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 주고, 여기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사업(노동)과 내면적 치유와 인생의 목적을 담은 심리재활 프로그램과 신앙의 문제(영성)를 터치해 주기 시작했다.

보통 노숙인들은 건축기가 끝나는 겨울철에는 일이 거의 없었고, 여름 장마철에도 역시 일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 가운데 기업인, 교사, 사회활동가 등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해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게 되었다. 먼저 2001년에 쉼터를 노동과 영성의 관점에서 함께 일하는 일터로 계양구 재활용센터를 만들게 되었다.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삼은교회의 김광웅 장로님이 열정적으로 일해 주었고, 무려 13년 동안 500여명이 이 일터를 통해 자립해 나갔다. 그 후, 재활용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한데 이어, ‘도농 직거래 상생사업단’이 만들어졌다.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물품들이 중간 중간 이윤 없이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전달 될 수 있어서 농어촌에서는 중간 도매상들에게 가격을 매도당하지 않아서 좋고, 도시의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물품들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무엇보다도 ‘도농살림’을 통해서 취업이 어려운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노숙인 쉼터로서는 큰 도움이 되고 든든한 일터가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기업들이 후에 사회적 기업의 근간이 되었다. 현재는 두 사업체 모두 사회적 기업으로 독립하였으며, 입소자들과 함께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한편 노숙인 쉼터 안에서 제기되는 문제 중에는 ‘독립적인 주거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쉼터 숙소 안에서의 공동생활은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노숙인들에게는 공동생활에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알코올을 자제하는 힘을 얻을 수 있어서 공동생활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공동생활은 자활을 꿈꾸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하는 성실한 입소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언제까지나 쉼터 안에서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였지만 자립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재정은 쪽방수준의 방을 얻는 길 뿐이었다.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해서 신용불량으로 채무가 몇 백에서 몇 천만 원 되는 경우에는 언제 돈을 벌어서 빚을 갚고 자신의 원룸 한 칸을 마련할 것인지 막막하기만 하였다. 이런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일 뿐이

었다. 그래서 교회와 노숙인쉼터는 문제해결을 위해 고민하게 되었고, 마침내 2007년에 시작된 ‘단신매입임대사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원룸 18채를 확보했다. 쉼터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자활의 가능성이 높은 입소자들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심사하여 입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쉼터를 들어 오기를 꺼리는 사람이 늘어만 갔고, 그들은 거리에서 노숙을 했다. 인천지역 거리노숙자는 약 150여명으로 추산되었다. 이들 가운데는 일부는 노숙인쉼터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낙인이 되었기에 싫어했고, 애인이 있거나 규칙이나 단체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쉼터 입소에 거부감이 있는 노숙인들에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그것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 바로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이었다. 공동모금회의 민간위탁사업으로 시작되었던 이 사업은 이제는 인천광역시에서 이어받아서 지원하고 있다.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기초생활 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주민등록증 말소에 따른 주소지 확보 등 자활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활용되면서 노숙인 쉼터의 공동생활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노숙인 쉼터는 지금까지 노숙인 쉼터가 그래 왔듯이 계속해서 수정보완되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노숙인쉼터는 현재 ‘민간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시도하면서 우선 거리 노숙인상담사업을 통해서 거리의 노숙인이 쉼터에 입소하거나 임시로 주거지를 받게 하고, 쉼터 내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취업안내를 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단신매입임대사업을 통해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고, 푸드뱅크나 무료급식소를 통해서 먹거리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자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위해 이 모든 것을 One Stop System으로 구축하고 있다.

모든 케이스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한 예로 쉼터에 입소하여 1,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 자격증을 취득하고 결혼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던 사례, 여성쉼터의 경우에는 세 자매를 키우는 엄마가 쉼터에 입소후 자립하여 지금은 단신 사업의 주택에서 살면서 현재 법인 내의 다른 기관에서 실무자로 일하기도 하는 사례 등은 우리에게 커다란 보람과 희망을 주는 사례들이다. 또한, 노숙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개최되었던 ‘희망등반대’는 한국경제신문의 기자단들과

함께 지리산을 종주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당시 등반대원 중에 최연소 대원이었던 한 입소자는 커다란 자신감을 얻어 자활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 후에 주변의 도움으로 전부터 문제가 있던 치아를 치료받기도 하였다. 여성노숙인 쉼터는 자활사업의 목적으로 입소자들을 중심으로 튀김과 같은 간식거리를 파는 ‘포장마차’를 하기도 하였고, 동절기에 봉어빵을 팔기도 하였다. 한식조리, 바리스타, 미용기술 습득 등 다양한 직업 재활에 지원을 하였다. 여성인 경우 남성들보다 더 생활력이 강하고, 자기 통제력이 좋아 자활비율이 더 높았다. 지금도 우리 내일을여는집 주변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살아간다. 봄에는 쌀을 지원하고, 겨울에는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아이들의 미진한 학습을 돕기 위해 과외까지 지원했고 여러 돕는 이들을 연결하여 장학금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가 뿌듯하게 느끼는 것은 초등학교때 엄마와 함께 쉼터로 들어왔던 아이들이 군대를 가서 초급장교로 임명되어 찾아오거나 어엿한 대학생이 되기도 했다.

내일을여는집 노숙인 보호사업은 인천에서 IMF때부터 운영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2011년 12월에 ‘인천시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노숙인쉼터의 15주년을 회고하면서 노숙인 쉼터가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임대료 시작했지만 몇 년 못가서 건물이 팔리는 위기속에 쉼터 숙소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쉼터가 폐쇄될 마지막 순간에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고, 계양구청을 통해서 위탁 받아 운영하던 계양구재활용센터는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났던 중동화재사건으로 센터 이전을 해야했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산재문제,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어야 하는 상황 등은 우리가 걸어온 고난의 흔적이다. 또한 우리 쉼터 식구들이 일하는 사회적기업 계양구 재활용센터나 도농살림이 수익성 면에서 흑자분기점을 넘지 못해서 존립을 고민해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 내일을여는집의 힘으로 축적되었다.

인천내일을여는집 노숙인쉼터가 현재 인천지역의 노숙인의 모든 필요와 아픔을 다 돌봐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5년간의 열정과 끈기와 경험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노숙인의 복지와 자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회고 참여자: 손재오, 이대영, 이문제, 김소영, 이재한

추운겨울에도 거리에는 노숙인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노숙인쉼터에서는 인천 지역 거리노숙인에 대해 동절기 집중상담을 진행하였다. 4개월 동안 253명의 상담원이 2,213명의 노숙인을 만났고, 이들 중에 21명은 자활쉼터로 4명은 재활시설로 14명은 병원으로 연계하여 알콜치료 및 질병치료를 의뢰하였다. 이들 중에는 알콜의존성이 강한 노숙인도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다.

<도표1>

동절기 거리노숙인 상담결과							
	쉼터입소	타시설연계	병원연계	귀가/귀향	기타	상담건수	상담원참여
2012년	12	1	11	1	0	1150	99
2013년	9	3	3	2	0	1163	154

쉼터에 거리노숙인들을 입소시키기 위해 수많은 상담과 대화가 필요했다. 그냥 거리에 나가서 거리노숙인들을 만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해야 조금씩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된다.

인천지역에서는 140여명의 거리노숙인이 있는데 그중 부평역과 주안역, 동인천역등 주로 역전에 거리노숙인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서울과의 이동성이 편리하고 또한 역주변에는 무료급식소가 있어 타지역보다 거리노숙인들이 많다. 그들이 왜 쉼터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에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니, 그들은 “쉼터에 들어가서 공동생활에 익숙지 않고, 한 번 잘 살아 보겠다는 의지나 희망이 없다”고 대답한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하루 하루 살아간다. 그래서 하루로 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늘 술에 노출되어 있다. 출기도 하고, 달래줄 이도 없고, 속도 비워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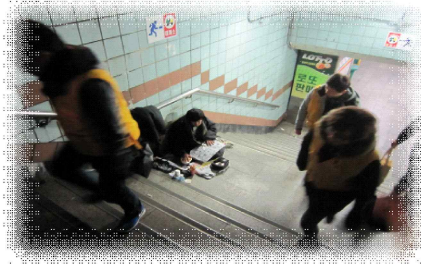
또한 알콜중독으로 인해 갈수록 사회복귀가 점점 힘들어 진다. 이들은 노숙을 하기 전, 직장생활을 잘 하다가 실직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강제퇴직으로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이혼과 같은 큰 충격에 빠져들게 된다. 거리에서 만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다시 일하고 싶고, 가정을 되찾고 싶다고...” 그렇지만 이들에게 다시 새 삶을 찾기란 쉽지만

은 앓는 듯하다. 추운 겨울, 노숙인쉼터에서는 이들의 욕구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매주 3회이상 거리상담을 통해 동사예방으로 방한복과 내복을 지급했으며, 감기 등으로 인한 약품 지급, 목욕티켓등을 지급했다.

거리노숙인들에게는 삶에 희망이 없다. 그러나 내일을여는집 노숙인쉼터는 잃어버린 희망을 찾기 위해 오늘도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희망을 되찾아주려고 땀을 흘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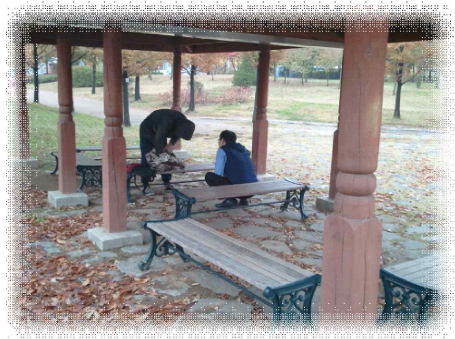
아래 사진은 거리노숙인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추위에 상관없이 뛰어다니는 상담원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한겨울, 지하철 계단한켠에 홀로 앉아있는 거리노숙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지만 우리들은 그럴 수 없다. 한 영혼이라도 보살피고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한 마디가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 물품을 지급하고 개별상담을 진행하였다. 개인적으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으며, 이는 다른 이가 알게 되면 개인의 인권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집중상담을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신용문제와 이성 문제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해주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안내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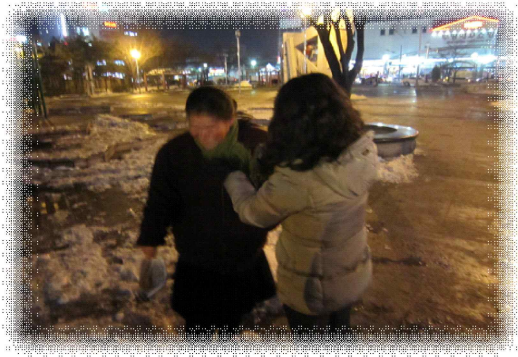
▶ 공원에서 외로이 홀로 거리노숙을 하고 있는 노숙인을 만나 상담을 하고 있다. 공사장 폐자재로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지내는 이 거리노숙인을 병원으로 안내해 치료해 주었고, 공원화장실에서 거처하는 거리노숙인들에게는 먹거리와 물품등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4개월이라는 동절기 집중 상담 기간은 참으로 길고 고된 하루 하루였

다. 동절기 상담기간에 입소하신 분들 중에는 새로운 직장을 얻어 열심히 자활을 꿈꾸는 분도 계시고, 병원에 입원한지 6개월이 지나 쉼터로 입소하여 자활한 이도 있다. 동절기 집중상담을 통해 좀 더 거리 노숙인과 친근한 관계형성을 하였고, 비록 거리에 있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연락이 온다. 거리 노숙인들이 이를 통해 많이 안정되어 간다. 의지할 곳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이 엿보인다.

▶ 여성거리노숙인의 경우 강간이나 성적 피해가 심각하다. 임신을 하고 입소하는 이들도 있고, 임신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들도 있다. 남성 상담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여성쉼터 시설장과 상담원이 정기적으로 거리상담을 실시했다.



◀ 최근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시, 구청의 담당 공무원과 함께 거리노숙인 야간 동행상담이 자주 진행되고 있다. 거리노숙인에 대한 관심과 정책 변화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구담당 공무원과 함께 민·관합동 거리노숙인 야간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노숙인에게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공무원들의 행정적인 업무추진이 현장중심적인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져 거리노숙인 보호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거리노숙인들은 알콜문제와 정신질환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다. 그래서 상담후 알콜중독의 문제가 있는 노숙인에게는 항상 병원연계를 해 주고, 3개월이나 6개월 후 쉼터 입소를 약속해 준다. 병원입소의 경우 2주 단위로 입소관찰을 하여 혹시나 인권문제나 기타 다른 욕구가 없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여성노숙인쉼터가 연극 관람

평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여성노숙인쉼터 입소자들에게 연극관람을 할 수 있는 문화활동시간이 주어졌다. 여성노숙인쉼터 입소자들 중에 연극관람이 처음인 입소자들은 어린아이처럼 마냥 좋아한다. 쉼터에 와서 열심히 자활을 꿈꾸며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여성쉼터 입소자들, 세상의 편견과 소외, 그리고 이들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이겨 온 쉼터 입소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비록 작지만 큰 선물이 된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에 말을 입소자들을 대신해서 전하고 싶다.



▲ 연극출연자와 함께 사진촬영

송영길 시장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추석나기



2013년 9월 18일
오전 9시부터 인
천내일을여는집 3
층 무료급식소에
서 송영길 시장
님과 함께하는 따
뜻한 추석 나누기
행사가 있었다.

매년 추석이 되면
명절이 되어도 방
문할 고향이나 환
영해 줄 가족이

없는 입소자들을 위해서 모든 실무자들이 명절휴가를 반납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명절기간 동안 입소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에 젖어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유난히 긴 추석연휴가 입소자들을 마음을 더 무겁게 할까봐 염려가 되었다.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해야할지 실무자들에겐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이 있었다.

감사한 것은 명절이면 늘 진행되는 명절 음식 만들기 행사도 이번에는 특별히, 송영길 시장님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 입소자들에게 송영길 시장님과 함께한 명절음식 만들기는 또 다른 의미가 되었고, 시장님이 자신들처럼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가족과 같이 보내야 할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 주시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는 시간 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님이 자신들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만들며 자신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처지를 공감해 주고 위로와 미래의 희망을 격려 받는 귀한 시간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고 명절의 쓸쓸함을 떨쳐 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추석명절이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서 알차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입소자들이 미래의 내일을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늘 한결같은 관심과 격려를 나누는 노숙인쉼터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박2일 : 자연을 통한 힐링 여행

노숙인 쉼터는 지난 2013년 11월 25일(금)에 1박2일 동안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축령산 근처로 자연만나기를 다녀왔다. 쉼터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식구들이 좁디좁은 쉼터를 떠나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그동안 마음에 쌓여 있던 상처들과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서로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동안 식구들은 쉼터에서 제공된 사회적기업과 다른 직장에서 자활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다. 그러다보니 서로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내면적으로 부딪치는 일도 많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계속 새로운 멤버들이 늘어 갔다. 퇴근 후 쉼터에서 실무자들과 깊이 상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래서인지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 해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자연만나기는 실무자들도 모두 참여했다. 우리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일단 내려놓고 함께 축령산을 올랐다.

특히 축령산을 오르며 붉게 수놓은 단풍을 바라보면서 그 동안 쌓이고 묵혀있던 내안에 아픈 기억들을 다 쏟아 놓을 수 있었고, 실무자와 입소자의 관계가 아닌 한 가족이 되어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 디딜 때 우리는 하나



임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정상에 올라 푸른 하늘과 오색 단풍으로 수놓인 산을 배경으로 자연과 인간이 본래 하나이었던 것처럼 아름다운 사진도 한 컷 촬영하였다. 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길이 더 힘들었다. 우리 인생이 모두 그러하지만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오는 길은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입소자 중에 오른쪽 다리가 좀 불편할 분이 있었는데, 행여나 넘어지지는 않을까 옆에서 조심조심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는 시설장님을 보면서, 우리 실무자들 역시 마음이 푸근해지고 마음으로부터 “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라는 노래가 저절로 흥얼 거리게 되었다.

저녁 식사는 모두가 바비큐로 나눴다. 이미 우리는 축령산을 오르면서 서로 가까워졌고, 함께 바비큐를 즐기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더 나눌 수 있었다. 저녁 식사후 김영선 목사님의 “인간관계 특강”을 통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표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미 자연을 통해 일정정도 힐링을 한 후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는 내용으로 5가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래서 미안했다는 5가지를 이야기 할 때, 그 진지함이란 숙소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이었다. 그동안 마음 한 켠에 묻어 두었던 미안했던 이야기, 고마웠던 이야기를 꺼내면서 때론 숙연해지기도 하고 때론 공감하기도 했다.

강의 후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다. 우리가 어린시절 화로에 밤과 고구마를 구워 먹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꿈 많았던 동심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쉽게 서로가 살아왔던 어린시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시 꿈을 주워 보고 싶었다.



둘째날 아침, 이준모 목사(이사장)로부터 우리 쉼터 식구들이 일하는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비전]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먼저 정부가 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몇 가지 필수적인 요인과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으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참여자 중 몸이 허약해져서 전혀 등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한 말이 마음에 박혀 잊혀 지지 않았다.



“밖에서 노숙을 할 때에는 거침없이 누비던 자유분방함이 있었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 친구들이 ‘너는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제어가 안 되었지만, 쉼터에 들어와서 안하던 일도 해보고 직장도 가져보고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기에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쉼터가 그냥 좋다.”

쪽방촌의 희망을 심다.

송림동 여인숙 촌에 살고 계시는 홍00씨는 의료진과 함께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당뇨합병증으로 두 다리를 절단하여 혼자서는 이동이 어려운 환자이며 휠체어를 타고, 오래되어 보이는 잠바에 머리를 꼭 숙이며 오신 홍00씨의 상태를 세밀하게 체크하려고 살펴보니 당뇨합병증으로 또 다시 왼쪽 다리 정강이 쪽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긴급하게 외과 수술이 이루어졌고 살이 썩은 부분을 마취하고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의료진은 앞으로가 문제라 하며 수술부위의 소독과 당뇨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너무 맘이 안쓰러워졌습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도움과 관심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치료를 미뤘왔고 그분의 삶이 이렇게 처참하게 떨어졌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윽고 쪽방직원들과 의료진들은 그 분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힘드시더라도 치료를 받으셔야 살 수 있어요!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처음 어르신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를 받아도 후일의 조치를 혼자 감당해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러자 홍00씨는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머뭇거리던 홍00씨의 생각 속에 희망의 새 꽃이 피어난 것입니다.

김00씨와 홍00씨는 현재 악화되었던 몸이 치료를 받으면서 완쾌하고 있는 중입니다. 희망을 구하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면 가능한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이는 곳에 희망의 새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2013년 어르신과 함께 한 일자리는 974개.



2013년 노인일자리 사업이 한 해를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시니어클럽은 올해 유난히 힘겨운 한해였습니다. 작년보다 갑작스럽게 두배로 더 늘어난 일자리 사업이었기에 시작부터 힘겨운 줄

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 동안 일자리 사업의 총 수는 974개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어르신을 접수받아 일일이 한 명 한 명 모두 상담해서 적합한 일자리를 제시하고 동의를 얻어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구분	시장형				복지형				공익형				교육형			시니어인턴십	합계
	아파트택배	어머니밥상	한우리공동작업장	은빛이미용	아이사랑도우미	출산가정도우미	지역아동센터도우미	시니어순찰대	산림킴이	사서도우미	공원지킴이	EM환경개사	숲생태설	전문지도사	한지도사	시니어인턴십	
참여인원	25	36	40	13	50	30	90	140	90	60	200	80	40	30	20	30	974

짧은 홍보기간과 접수방법, 제출서류 등 관련내용이 모집직전까지 변동이 많아서 안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르신들의 일자리 참여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씩 더 늘어나 총 9개월을 참여하게 되어서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인천계양시니어클럽에서는 기존의 사업 외에 공원지킴이, 시니어순찰대, 이미용사업단 등의 신규 사업이 추가되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계양구청 공원녹지과와 계양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2월 8일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된 노인

일자리 공원이 지킴이 참여어르신 200명에 대해 노인일자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공원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행위 계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우리공동 사업장 이전 새단장

어르신을 위한 한우리 공동작업장이 그동안 작업장 공간을 얻지 못해 두군데로 나뉘어져 운영되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회관에 새터전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좋은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계양시니어클럽 사무실 옆에 마련됨으로써 일과 상담 등 관리가 수월해졌고, 어르신들은 엘리베이터가 있어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공간에 40여명이 함께 모여 일하고, 점심시간이 되면 작업장과 가까운 해인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연계가 좋아 만족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작업장이 해인교회로부터 멀어 겨울철에는 빙판사고도 있었고, 한 여름에는 맹벌레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번 공간마련은 특별히 박형우 구청장이 사회복지회관이 생기면서 노인들의 민원을 챙긴데서 성사되었습니다.



공부방 새단장, 새 희망을 꿈꾸다!

지난 8월 어느 여름 날, 태풍으로 인해 비가 세차게 몰아쳤다.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 센터 주방 바닥에 물이 차있었다. 올 해는 잘 넘어가나 싶었지만, 워낙 건물이 노후한 탓에 한 두 푼의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



비단 누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화장실 환경도 열악하여, 겨울이 되면 너무 춥고, 아이들은 손을 씻을라 치면 한 개 뿐인 세면대 앞에서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기 일쑤였고, 그마저 있는 세면대도 고장이 나서 위험한 상태로 사용하였다. 때마침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과 “행복한아침독서” 측에서 지원하는 “희망의 공부방 새단장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아이들과 교사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는데 기쁘게도 선정되었다.

10월 28일.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방수 도색을 하고, 센터의 낡았던 도배, 장판, 싱크대를 바꾸고, 열악했던 화장실 환경도 변기, 세면대, 타일 교체를 통해 쾌적하게 바뀌었다. 무엇보다 기존의 세면대가 구식이라 냉수, 온수 수

도꼭지가 구분되어져 따뜻한 물을 쓰기 쉽지 않았는데, 신식으로 교체하고, 하나를 더 추가로 설치하여 아이들이 기다리지 않고, 올 겨울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 공간에 있던 주방과 독서실에 도어문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리하고, 아이들이 학습과 프로그램을 더욱 집중해서 진행할 수 있는 아늑한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일주일간의 공사가 마무리 되고, 아이들이 새롭게 바뀐 센터로 온 첫 날,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연신 대박!!을 외치며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아이들에게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심어줬음을 잘 설명해주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미래에셋과 행복한 아침독서에 보낼 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했다. 새 단장을 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새 희망을 꿈꾸며,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길 소망한다.



외도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 해결책을 찾아서...

어린 시절 같은 고향에서 자라고 서로 허물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연인이 된 첫사랑 부부의 이야기다.

남편에게 아내는 유년시절부터 대학시절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다. 남편은 신혼 때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었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기가 어려웠다. 남편은 정말로 아내를 사랑했다. 오랫동안 사랑했다. 그러나 20년 쯤 시간이 지나 부부로 살아온 익숙함과 편안함에도 불구하고 웬지 다른 한편에서 일어나는 서운함, 외로움, 허전함 등이 자리하고 있었고, 웬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로 늘 지루하게 느껴졌다. 이를 보통 “우리 부부 요즘 권태기야.”라고 말한다.

* 아내 :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게 된 것이 20년 되었네요, 저의 외도로 지금 우리 가정은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 또 남편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에 대한 배신, 증오, 불신이 가득하고 술만 마시면 늘 저에게 그 때 일을 상기 시키며, 그 남자에게 했던대로 그대로 해 보라고 해요, 제 잘못이니까 치욕적이지만 견뎌야죠... 그런데 얼마나 지나야 이 사람의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요?

* 남편 : 아내는 저에게 있어 첫사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자를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저라고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지금 많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시간이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외도 사실을 알고 저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헤어짐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분명 저의 처분을 따른다고 했고,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내를 사랑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상하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들 보다 아내가 먼저입니다,

아내를 사랑했던 만큼, 아내와 가족에게 충실했던 것 만큼, 남편은 배신감과 억울함에 몸서리쳤다. 이것이 폭력으로 나타났다. 사실 남편의 처지가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남편의 해소방법이 폭력

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권태기적 증상을 잘 극복을 해야 하는데, 이를 외부에서 술이나 다른 여성이나 남성으로부터 해결하려다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외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남편만 바라보던 아내가 점점 남편은 그저 그렇고,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아이들도 제 각기 바뻐고... 그러다가 우연한 자리에서 알게 된 낯선 남자의 친절이 웬지 신선했고, 설레이게 했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다시 일으키게 하면서 설명할 수 없는 삶의 활력소로 나타났다. 순식간에 빠져 들었다. 아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 이미 너무 많이 와 있었고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 자신이 너무 미웠고 죽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어쩔 수가 없었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고, 이런 자신을 마구 때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그저 남편의 처분만 기다리고 남편의 분노가 가시기만 바랬고 상처가 세월이 가면 아물기를 바랬다.

외도는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을 만큼의 상처이고 배신임에 틀림없다. 그 행위가 의도적이던 실수였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잘못이라면 배우자가 용서 할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일 것이다.

이 부부는 상담을 통해 서로 무엇을 원했고 고통스러웠는지 알아갈 수 있었다.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수용적인 방법을 찾아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여러 차례의 상담과 부부의 노력을 통해 가정의 해체가 아닌 마지막 사랑을 보여주었다. 분명한 것은 문제해결의 열쇠는 본인이 쥐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족상담소가 이전 했어요~!



전세대란이라는 말을 신문이나 뉴스에서나 접했지 가족상담소가 전세금 문제로 고민하게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지난 6년 전세보증금 한 번 올리지 않고 시설을 잘 운영 할 수 있었다 하는 감사한 마음과 또 한편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 하는 근심을 갖고 이전을 고민하던 중 계양구청과 협의가 되어 복지기관들이면 입실 하고픈 계양구 사회복지회관으로 지난 6월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한 상담소는 예전 상담소와 달리 내방자들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보다 안정되고 편안함 속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단장하였습니다.

새롭게 이전하여 환경이 좋아진 탓인지 가족상담소는 올해 여성가족부 평가와 인천시 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상담소는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전화상담과, 내방상담, 집단프로그램, 예방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내담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월 평균 120건 이상의 상담과 가해자, 부부집단 프로그램은 전국에서도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하여 여러 언론에도 보도 된 바가 있으며, 특히 올해 신규 협약 사업인 해피 연리지 홈 케어프로젝트는 인천삼산경찰서와 가족상담소가 4월부터 가정폭력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부부나 가해자를 상담소로 연계하여 그 분들을 집중 상담, 사후 관

리하여 가정을 함께 지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인천삼산경찰서와 내일을여는집 부설 가족상담소가 실시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들의 호응과 반응 또한 좋아서 각 방송사에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상담소는 앞으로도 가족의 의미를 담아서 더 많은 가족들이 회복하고 회개 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며 나아가 이전한 새로운 공간에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 내일을여는집 가족상담소는 인천가정법원과 검찰청의 가정보호사건 행위자 상담수탁기관입니다. 부부 갈등, 가정폭력 전문상담을 하고 있으며 부부평화교실 프로그램과 무료 법률구조 연계 및 피해자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 터 넷 상 담 : www.homelessshot.or.kr
24시간 상담전화 : 032) 541-1366 / 032)543-7179

‘희망의 꽃씨

2013년 04월 20일 토요일 인천쪽방상담소는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무료 의료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날씨가 좋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침 9시부터 몰려든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총 230명의 쪽방 주민 및 차상위계층 분들이 함께하는 아주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병이 깊어져도 여건이 되지 않아 그냥 지나치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라시면서 호응도가 좋았고 특별한 일이였기에 의료진들에게도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날 병세가 급격히 악화 된 김00씨는 자원봉사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담당자가 보기에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였는데 진료 순서를 기다리시는 분들을 뒤로 하고 긴급하게 진료를 하였습니다. 전문의의 진료결과 긴급하게 후송하여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이 나왔으며 긴급하게 119로 연락을 취하고, 한림병원에 연락하여 응급실로 후송조치를 하였습니다. 진료하여 보니 급성 폐렴증세로 위험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의료진들은 전하였고 지금은 병원에 입원하여 안정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쪽방상담소)



실버들이 운영하는 은빛

미용실 오픈!



이미용사업 은빛미용실이 본격적인 준비과정으로 5월에 사회복지회관 2층에 오픈되었다. 은빛미용실은 지역 사회내에 전문적 노하우의 미용기술을 겸비한 어르신들을 고용하여 개업하였다. 현대사회에는 노인을 위한 미용실 또는 취약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한 미용실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은빛미용실에서는 품질이 좋은 미용재료와 현대첨단장비로 시술하여 착한가격으로 지역사회의 고객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복지회관 2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7월부터는 전신마사지기와 멤버쉽포인트를 적립하여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편안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로 지역사회의 사랑방 같은 서비스의 미용실로 자리잡고 있다.(시니어클럽)

미술을 통해 열어가는 우리의 마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인기 검색순위에 이혼이 교통·운전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이혼이 사회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일까? 이혼의 피해자는 아빠도, 엄마도 아닌 아이라는 것을 어른들은 모르는 걸까?

우리 센터에도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은 전체 이용 아동의 60%를 차지한다.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아픔을 숨기고, 때로는 산만한 모습으로, 때로는 공격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 치료 겸 아이들이 마음 문을 열고 자신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전문 강사를 모시고 올 해부터 미술치료를 시작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아이들은 이 시간을 가장 즐거워한다. 올 한 해 미술치료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길 바라본다.(해인지역아동센터)



▲◀ 즐거운 미술치료 시간!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항상 밝고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봉사를 통해 희망을 심었어요!

지난 10월 12일,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자리하고 있는 ‘팽이부리마을 희망키움터’ 앞은 어느날과는 다르게 아침부터 시끌벅적했다. 인천쪽방 상담소에서 열리는 ‘희망사회만들기 의료봉사’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민들 중 의료비가 없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고 차일피 미루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수준 높은 의료진들이 오신다는 말에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강동 경희대 병원 의료봉사단과 롯데복지재단이 도움을 주었다.



▲ 의료진료 후 쌀을 나누어 드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땃까지 봉사자가 쌀을 옮기는 모습.

사실 팽이부리마을 쪽방 주민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부두 노동자들이 주로 생활하다가 6.25 전쟁 직후 피난민들의 정착촌으로 형성되어 지금에 이른다. 지금은 주민의 70%가 홀로 사는 노인들이다. 가장 큰 문제가 건강문제다. 소소한

진료는 의료원이나 가까운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진료나 종합적인 건강진단은 생각도 못했다.

아침부터 실내와 실외까지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천막을 치고 지원 물품(쌀, 빵, 음료수 등)을 나르고 쌓으라고 정신없이 분주했다. 진료가



▲ 쪽방주민을 진료하고 있는 모습.

시작되었다. 진료 과목으로는 내과(소화기, 류마티스, 호흡기, 내분비), 정형외과, 치과, 안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한방과 등이 진행되었다. 400여명의 지역민들이 몰려 들었다. 1,080건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졌다. 진료를 받은 사람 가운데는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원을 연계하여 수술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다. 진료를 받은 후에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주민들 손에는 빵과 음료수 그리고 쌀 10kg짜리 1포대씩이 주어졌다.

최씨 어르신은 받은 물건을 집으로 가져 가시는 것도 문제 되었다. 너무 많고 무거웠기 때문이다.

“나는 허리가 불편해서 들고 가기 힘든데 걱정이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집에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자원봉사자들이 최씨 어르신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짐을 들고 일어선다. 우리 모두가 서로 위해 주는 분위기로 충만했다. 온 세상이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다.



◀ 거동이 불편한 쪽방주민을 위하여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진료하는 모습

행복한 화장실, 웃음꽃 피는 공간으로

“언니, 빨리 나와!”

“선생님! 화장실이 또 막혔어요!!!”

아침마다 출근전 전쟁이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화장실은 두 개 밖에 없어 출근전 등교까지 시켜야 하는 어머니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 더군다나 화장실 환경은 너무나 열악했다.

겨울이 되면 한파에 화장실은 너무나 추웠고, 화장실에 앉아 있기가 어려웠다. 오래된 건물이라 더욱 추웠다. 무엇보다 하수구를 통해 올라오는 악취는 심각했다. 여름에는 그 냄새가 더했다. 몇 년 째 주인에게 고쳐 달라고 했지만 경기타인지 주인 역시 냉담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에서 Happy Bath, Happy Smile 『해피바스 해피 스마일』이라는 공고를 낸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정말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생각에 열심히 공모 준비를 한 결과 선정되었다. 그러나 또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주인이 공사 허락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재단에서는 공사기간이 최소 3년이 보장되어야 지원하기 때문에 주인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다. 한동안 주인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기도 덕분에 천주교 신자인 주인도 자신의 가족이 들어와 살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하여 임대기간의 연장을 허락해 주셨다. 공사가 시작되었다. 공사를 하면서 도저히 살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는 이들은 먼지와 소음속에서 사투를 벌이듯 했다.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서서히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 마침내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화장실내는 찬공기가 사라졌고, 변기도 온기가 올라왔다. 샤워실이 따로 만들어졌고, 세면대도 고급스런 장식으로 되어 마치 호텔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무엇보다 씻는 공간과 화장실이 일부 구분되면서 아침마다 반복되는 출근 준비 전쟁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모든 식구들이 아침 화장실에서부터 행복하고, 낮에 일하고 돌아와 씻으러 들어간 순간부터 즐겁다. 향긋한 향기가 나고 밝아진 화장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 예뻐 보이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열어가는 희망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한다.



▲ 전과 후의 모습이 정말 다르죠? 완전 행복한 화장실이 되었습니다^^

쪽방촌 쉼터 '폭염' 무사히 넘기다'

인천쪽방상담소, 무더위 쉼터 3곳 운영

13-08-21 16:09 | 송정호 기자 (goodsong@naver.com)

좋아요 0

f t 메일 인쇄 스크랩



계양구 무더위 쉼터

인천지역 쪽방촌 주민들이 지는듯한 무더위를 지역 각계의 도움으로 무난히 넘기고 있다.

(사)내일을여는집(이사장 이준모 목사) 인천쪽방상담소는 해안교회와 함께 인천시,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서부발전(주) 서인천발전본부, 계양구무드뱅크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25일부터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쪽방상담소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는 동구 만석동(30평 규모), 중구 인현동(무료급식소와 컨테이너 2곳, 10평 규모), 계양구 계산동 해안교회(43평) 등 쪽방 밀집촌 3곳에 위치해있다.

쪽방은 통풍상 공간이 좁고 밀집 구조로 통풍이 어렵다. 건물 구조상 여름철에는 집안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는 집들이 돼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 게다가 변변한 냉방시설이나 목욕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폭서기의 살인적인 폭염을 이겨내기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자구책으로 밖으로 나가서 무더위를 피하는 게 고작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 쪽방 주민들을 위해 인천쪽방상담소가 지난해 여름부터 에어컨을 가동하는 쪽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까지 개방하며, 쪽방 주민들에게 저녁식사 및 간식, 얼음물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선풍기, 아이스머플러 등 냉방용품은 쉼터를 찾는 어르신들 개인에게 지원하여 폭서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인천쪽방상담소 직원 4명으로는 3곳의 쉼터를 찾는 이들을 맞이하기에 손길이 닿지 않는다. 어르신들이 계속 찾고있는 쉼터를 비울 수 없어 밤 11시에 귀가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또 올해는 인천시가 특별예산을 편성하고 인천공동모금회 등 각계가 긴급 지원에 나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폭서기와 폭한기에 대비해 안정적인 예산으로 쉼터가 운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쪽방상담소 박종숙 소장은 "머려운 형편에 폭염을 피해 변변히 나설 곳도 없는 쪽방 어르신들에게 쉼터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운영에 가장 큰 어려움이 직원 충원인데, 보건복지부에 증원을 요청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화제의 나눔 ③

나누려는 마음은 누구보다 넉넉한 사람들

인천 만석동 폭방촌, 5년째 십시일반 모아 기부



최근 수일을 쉬고 고가 소금한 집으로 전이한 인천 폭방촌 주민들. 앞줄 왼쪽이 이문보 목사. 뒷줄 왼쪽은 박종두 인천학원장(임원소장)이다.

나누려는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나눔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다.

지난 1월 4일 인천 만석동 폭방촌 주민을 비롯해 노숙인 쉼터 일소자와 무료급식소 이용 노인 등 300여 명이 112만150원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이들의 기부가 최대가 된 이유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3000년부터 꾸준히 이 돈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건네고 있기 때문이다.

3000년부터 만석동에서 나눔 활동을 하고 있는 이문보 목사는 "폭방촌 사람들은 누구보다 가난의 고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눔에 동참한 것"이라며 "생활사 발달에서 시작된 모금운동이 노숙인 쉼터와 무료급식소로 퍼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만석동 폭방촌은 일명 '하카사기촌'으로, 살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만큼 비좁은 골목길에 2~3대 낡은 작은 방들이 다다다라 붙어 있는 동네다. 이곳 주민들은 자활사업장 '쟁이부리갈' 작업실에서 만년필과 종이를 만들어 팔거나 재직을 우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무연 대표로 참석한 김명환(73) 할머니는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나눔에 동참한 소감을 전했다.

소중한 정성을 전해 받은 김주영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은 "폭방촌 어르신들의 정성은 나눔에 계승되고 서툰 어르신들 부끄럽게 만든다"며 "행복 노력이 담긴 물건 한 개, 지폐 한 장을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쪽방촌 노인들의 칠순잔치 (인천=뉴스1) 신창원 기자 2013.05.14

14일 인천시 중구 시크릿마리에 웨딩홀에서 열린 쪽방촌 노인들의 '제6회 합동칠순잔치'에서 칠순을 맞은 6명의 어르신에게 참석자들이 큰절을 하고 있다. 인천쪽방상당소는 2008년부터 매년 쪽방촌에 거주하는 노인 중 칠순을 맞이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이 없어 잔치를 할 수 없는 노인들에 대한 합동칠순잔치 행사를 열고 있다. 2013.5.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송영길 시장, 노숙인 쉼터서 송편만들기

2019년 09월 29일 (월)



송영길 인천시장이 추석인 지난 18일 계산동에 위치한 노숙인 쉼터 '인천내일을여는집'을 찾아 명절음식을 함께 만들었다.

인천 내일을 여는 집은 1998년 IMF때 '실직자를 위한 쉼터 및 자활모임터'로 출범한 뒤 실직자를 위한 상담소와 무료급식소, 실직 노숙인을 위한 쉼터, 재활용센터, 공부방 등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단체다.

/김상무기자 theexodus@itimes.co.kr

쪽방촌 주민에 웃음 선물

인천 상담소-계양 푸드뱅크 지역민 초청 행복 나눔잔치

2018년 09월 12일 (목) **지역보거** | 12면

최태웅기자 tyo@kjhilbo.co.kr

인천쪽방상담소와 계양구 푸드뱅크는 11일 계양구 계산동 해인교회에서 쪽방촌 주민 및 푸드뱅크 재가 이용자 200여 명을 초청해 '사랑과 행복의 나눔잔치'를 열었다.

추석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는 실무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명절 음식을 나누며 레크리에이션 및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한림병원·눈편한안과·금강보청기에서 의료진을 파견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벌였고 계양구 푸드뱅크는 추석 선물을 준비했다.

이준모 해인교회 목사는 "쪽방촌과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명절이 더 외로운 사람들"이라며 "매번 준비하는 행사지만 이번엔 연휴가 길어 의료서비스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후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현황

[기탁품 접수통계]

단위: 천원/건

총 건수	총 기부인 원	총 수량	총 장부가 액	주식류			
				건수	수량	장부가 액	백분율
				112	24,578	35,314	27.59
406	31	139,201	110,520	부식류			
				건수	수량	장부가 액	백분율
				40	7,417	29,729	9.86
식재료				간식류			
건수	수량	장부 가액	백분율	건수	수량	장부가 액	백분율
68	3,250	13,284	16.75	183	102,776	32,023	45.08
생활용품							
건수	수량	장부 가액	백분율				
3	1,180	170	0.74				

[배분통계]

단위: 천원/명/누계

구분	계	기초 생활수급자	저소득	차상위	긴급대상자
배분 금액	172,739	104,326	11,427	52,642	4,344
건수	20,292	12,127	1,183	6,297	685
총인원	2,915	1,736	191	886	102
백분율(%)	100	60.233	12.281	29.922	3.566

[물품 기부업체]

까르르스타(구,청해비페), (주)하나유통, 굴현초등학교, 임승택, 세림유통, 세림유통, 삼락오리, 작동초등학교, 가좌농산물, 금강상회, 웰푸드, 쏘코리아

이용현황

푸드뱅크사업 (01월~09월)

[기탁품접수통계]

(기준: '13. 01~09월말/단위: 천원,건)

센터	총 건수	총 기부 인원	총 수량	총부가 액	급식류			
					건수	수량	장부 가액	백분율
					1,344	9,954	26,501	61.09%
계양구 푸드 뱅크	2,200	34	338,880	245,205	주식류			
					건수	수량	장부 가액	백분율
					3	22,980	18,546	0.14%
					주식류			
					건수	수량	장부 가액	백분율
					3	22,980	18,546	0.14%

간식류				음료류			
건수	수량	장부가 액	백분율	건수	수량	장부 가액	백분율
18	1,141	8,304	0.82%	1	40	288	0.05%
생활용품				신선(육류)			
건수	수량	장부 가액	백분율	건수	수량	장부 가액	백분율
3	1,180	170	0.74	5	2,049	40,100	0.23%
생활용품				빵류			
건수	수량	장부 가 액	백분율	건수	수량	장부 가액	백분율
3	86	448	0.14%	826	302,630	151,018	37.55%

[기탁품 배분통계]

(기준: '13. 01~09월말/단위: 천원,건)

구분	총계
----	----

희망을 주는 사람들

	장부가액	건	명	개소	백분율
누계	279,481	24,327	2,290	51	100%
이용시설					
	장부가액	건	명	개소	백분율
누계	73,841	445	773	27	3.06%

생활시설					재가이용대상자			
장부가액	건	명	개소	백분율	장부가액	건	명	백분율
81,075	1,270	1,163	24	5.23%	118,426	22,356	172	87.67%
기타법인, 단체								
장부가액	건	명	개소	백분율				
6,139	256	182	1	4.04%				

[물품 기부업체]

파리바게트(임학점), 파리바게트(효성점), 파리바게트(계산점), 던킨도넛츠(작전점), 던킨도넛츠(계산점), 파리바게트(풍차점), 파리바게트(병방점), 파리바게트(아이파크), 파라바게뜨(장기점), 파라바게뜨(박촌점), 뚜레쥬르(박촌점), 케익하우스델리, 파리바게뜨(작전동보점), 주)비알코리아인천공장, 파리바게뜨(작전점), 파리바게뜨(굴현점), 파리바게뜨(경인여대점), 뚜레쥬르(박촌점), 캔디마켓, 프리미엄달란트, 파리바게뜨(동양지구점), 주)산들푸드, 먹거리나누기운동본부, 금강상회, 성발무역, 주)그린, 주)신양, 베지밀계산점, 부평초등학교, 안산초등학교, 명현초등학교, 계산초등학교, 경인교대부설초등학교, 부현동초등학교, 부연초등학교, 작전초등학교, 신대초등학교, 서운중학교, 서운고등학교, 계산중학교, 한기장복지재단, 인천광역푸드뱅크, 계양구푸드마켓, 삼일무역, 선상무역, 부평구푸드마켓2호점, 남동구푸드마켓2호점, 동방미트앤푸드, 주)태원도매물류, 주)아웃팅, 파리바게뜨(동양점), 가나축산유통, 주)에스투코리아, 롯데제과부평물류센터, 장인족발, 더불어사는마을, 하누리, 주)한국마쓰다니, 왕큰돈까스, 동방미트앤푸드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내일을 여는 집 가족상담소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정폭력관련 시설 종사자교육(100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육 기간 2014. 1월 예정

장 소 사단법인 인천 내일을 여는 집 『내일을 여는 희망교육원』

교육 비 29만원 (교재비포함)

모 집 대 상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 한자 /이주노동자 및 외국어 관련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접 수 / 문의(등록) 032)543-7179 / Fax032)544-1363 / www.homelessshot.or.kr

수강과목	강사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이지예 (상담과사회복지연구소장)
가정폭력 법적대응	구무모(법률상담행정사)
이혼재판	안귀옥(화은 법률 대표변호사)
가정폭력의 의료적 지원	배승민(가천의대길병원신경정신과 전문의)
가정폭력 행위자 이해와 상담원리	이성원(연세, 고려대 사이버교수)
상담을 위한 의사소통 워크숍	김영선(희망교육원장)
가정폭력과 사회복지체계	이준모(내일을여는집 이사장)
상담사례연구 및 슈퍼비전	정윤경(연세대사회복지대학원객원교수)
양성평등과 상담원 자질	김영희(서강대학교 양성평등연구소 교수)



